

코로나19 피해 학원 지원 앞장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안전우선 교육서비스업 금융지원 협약 보증 대출상품 전 영업점서 판매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육서비스업계 소상공인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전북본부는 23일부터 '안전우선 교육서비스업 금융지원 협약 보증' 대출 상품을 전 영업점에서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는 농협중앙회(이성희)가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 김병근)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육서비스업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상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NH농협은행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30억원을 출연하고 각 지역의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서를 발급해 지원하는 대출상품으로,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총 4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학원 등의 교육서비스업

을 영위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에서 각 시·도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으로부터 교육부의 휴원 권고일인 "2020년 2월 5일 이후 5일 이상 휴원을 했다"는 내용의 휴원증명서를 발급 받은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의 대표자 개인신용등급이 8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대출금액은 업체당 최대 1억원, 대출기간은 1년으로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대출금리는 변동금리(3월 20일 기준 2.52%)를 적용한

다.

대출 지원대상, 신청절차 등 상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의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전국 NH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상담 가능하다.

장기요 본부장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원 등 교육서비스업계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협은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한 든든한 우산 역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하림, H데이 프로모션 진행 내달 2일까지 타임세일 등

닭고기 전문기업 ㈜하림이 공식쇼핑몰 하림샵에서 '대한민국이 닭고기 하나 되는 날, 하림 H데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H데이 프로모션은 3월에 H가 그려지는 날(17일, 19일, 24일, 25일, 26일, 31일, 4월 2일)을 정해 H데이마다 다른 혜택의 이벤트를 제공한다.

H데이의 17일과 19일 진행된 '#여배우 닭가슴살'과 '튀김&양념육' 이벤트가 큰 인기를 끌며, 24일부터 진행되는 프로모션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림은 오는 24일 간편 보양식이 필요한 소비자들을 위해 '하림 삼계탕' 구입 시 33%의 적립금을 제공하고, 25일 '하림 숙성 닭가슴살 18종' 할인 및 적립 최대 70%를 진행한다.

또 26일 남녀노소 영양 간식으로 자리잡은 '에어프라이어치킨' 구매 시 33%를 적립 받게 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도내 'NH손보 연도대상' 수상자 확정

사무소 종합부문 - 우수관촌 · 장수농협 등 12곳

개인부문 - 구천동농협 유영철 과장 등 12명

특별승진전형 - 진안농협 임미정씨... 시상식은 7월

NH농협손해보험 전북총국(총국장 강희상)은 2019년도 NH손해보험 연도대상 수상자가 전북관내는 사무소 부문에 12개 농·축협이, 개인 부문에 12명이 확정됐고, 코로나19로 인해 시상식은 7월에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사무소 종합부문 대상사무소는 오수관촌농협(조합장 정철석) 장수농협(조합장 김용준) 진안농협(조합장 허남규) 동진농협(조합장 최진오) 황토현농협(조합장 김재기) 구천동농협(조합장 양승욱) 부귀농협(조합장 직무대행 김경춘) 7개 농협이고, 우수사무소는 정읍농협(조합장 유남영) 장계농협(조합장 박

점음) 남원축협(조합장 강병무) 3개 농협이며, 일반보험부문 우수사무소는 전주농협(조합장 임인규) 정읍원예농협(조합장 이대건) 2개 농협으로 전북에서 12개 농협에서 사무소 수상을 하게 됐다. 특히 오수관촌농협과 장수농협은 2017년부터 3년 연속 대상 수상으로 3관왕의 영광을 안았다.

개인부문에서는 금상 유영철(구천동농협), 은상 최윤임(동진농협), 동상 이은선(황토현) 유태형(정읍농협) 유미숙(익산농협) 우수상 류미옥(황토현) 김란희(오수관촌농협), 신인상 고자순(부귀농협) 안영희(황토현농협) 이선정(진안농협)

이 종합부문에서 수상을 확정했다. 또한 일반보험부문에서는 동상 김영신(전주농협), 우수상 홍경욱(전주농협)을 포함해 12명이 수상을 하게 됐다.

올해는, 구천동농협 유영철 과장이 은상(2017) 금상(2018)에 이어 올해도 금상을 수상한 것과 동 김제농협 최윤임 사무가 2013년부터 7년 연속 연도대상에 수상하게 된 것, 그리고 황토현농협에서 3명(동상 이은선, 우수상 류미옥, 신인상 안영희)의 수상자가 배출된 것이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연도대상 수상자 명단에 없는 임미정(진안농협)씨는 2018년 은상에 이어 금상의 성과를 이루었으나 특별승진전형(보훈 3년간 실적, 전국 2명 수상)으로 확정돼 중복수상 배제되었지만, 전북에서 최초로 특별승진을 하게 되어 부러움을 받고 있다.

/김윤상 기자

외래해충 갈색날개매미충, '천적'으로 방제 길 열려

농진청, '날개매미충알벌' 선발 활용 기술 개발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외래해충인 갈색날개매미충을 방제할 수 있는 천적 '날개매미충알벌'을 선발한 뒤 국내 최초로 활용 기술을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갈색날개매미충은 중국에서 유입된 해충으로 2010년 충남지역에서 최초로 보고됐고 사과, 감, 복숭아 등 과수 작물뿐 아니라 단풍나무, 배롱나무 등

수목과 조경수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 주로 살충제를 이용해 방제하고 있으나 농업생태계 보전을 위해 천적을 활용한 친환경 방제기술이 필요한 실정이다.

농진청은 우선 '날개매미충알벌(Phanerozemia ricanke)'을 선발해 발육 온도 등 생물학적 특성과 국내 월동가능성을 밝히고 방제 활용 가능성을

검토했다. 날개매미충알벌은 일본 규슈, 자바섬에서 발견되며, 하루 최고 7개의 알을 주로 낮에 낳는다. 날개매미충알벌은 온도가 높을수록 발육기간이 짧고, 성충의 수명은 온도가 낮을수록 길었다. 알을 낳는 개수는 25°C에서 가장 많았으며 15°C에서 가장 적었고, 교미하지 않은 암컷이 산란한 알은 수컷만 생성되는 단위생식을 했다.

또한 날개매미충알벌은 2015년 전남 구례에서 발견된 이후 갈색날개매미충의 발생과 비슷한 확산세를 보이며 안성, 오산, 의왕, 용인 등 경기 남부까지 확산해 월동할 수 있음을 확인했

다.

아울러 날개매미충알벌은 야외에서 1.0~54.3%까지 기생하므로 갈색날개매미충을 방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김현란 농촌진흥청 작물보호과장은 "앞으로 대량 사육된 날개매미충알벌의 효과적 방제를 위한 적정 방제비용을 구명해 농경지와 산림지에 방사할 계획"이라며 "날개매미충알벌을 사용하면 갈색날개매미충 방제 약제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 건전한 농림생태계를 보전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북구공사가 완료된 사매2터널 전경.

북남원IC~오수IC 구간 통행 재개

(완주방향)

사매2터널 복구공사 · 최종 안전점검 완료... 오늘 오후 5시부터

한국도로공사(사장 직무대행 진규동)는 지난 2월 17일 터널 화재사고로 차단됐던 제27호선 순천완주고속도로 북남원IC~오수IC 구간(13.7km) 완주 방향(상행)의 차량통행을 오늘 오후 5시부터 재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사고가 발생했던 사매2터널은 복구공사와 최종 안전점검까지 마친 상태이며, 차량통행 재개는 통행 제한 34일만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사고 다음날부터 내·외부 전문가 합동으로 터널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크레인 등 장비 240여대와 인력 950여명을 투입해 주·야간 현장복구 공사를 진행했다. 차량화재로 크게 손상됐던 터널 상부는 파형강판으로 보강하고 콘크리트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보수했으며, 파손된 노면도 전면 재포장했다. 터널

조명등(330개)은 고효율 LED조명으로 새로 설치해 터널 내부 시인성도 개선했다.

또한,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도 확충했다. 터널 전방에 교통상황을 안내하는 도로전광판(VMS)을 설치하고, 내부 차량들의 주행속도를 알려주는 시설물을 터널 입구부에 설치했다. 이외에도 터널 입·출구부 노면 흡파기와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운전자의 감속을 유도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조속한 개통을 위해 긴급복구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해, 당초 예정보다 일주일가량 빠른 34일 만에 작업을 완료했다"며 "교통통제에 따른 불편을 감수해주시는 국민들께 감사드리고, 더욱 안전한 고속도로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한전 익산지사, 익산시와 배전선로 지중화공사 협약

한전 익산지사(지사장 김광중, 위원장 기양도)는 익산시에서 추진하는 '중양동 도시재생사업(역사가문화로)'의 일환으로 지난 19일 익산시와 배전선로 지중화공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중화 공사가 추진될 특화거리는 새마을금고 익산중앙본점에서 손약국에 이르는 생활커뮤니티도로 220미터와 중양동 동계약국에서 성은산업에 이르는 사회경제어울림플랫폼진입로 530미터로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보행환경과 도시경관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약 1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전력과 익산시가 각각 50%씩 사업비를 부담하게 된다.

한국전력공사는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한다.

/김윤상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
전주수목원 임시 휴원

지난 21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은 정부시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오늘부터 휴원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휴원기간은 오는 4월 6일까지이며 코로나19의 확산·진정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